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2026 vol. 368

JANUARY 1월호

말씀 마주보기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에스더서는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에 위치한 책으로,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앞 단계이자, 구약 역사의 마지막 국면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이 책이 독특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율법, 제사, 성전, 언약과 같은 구약의 핵심 개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부 학자들은 “이 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에스더서의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다른 성경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초자연적 사건을 기록했다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상과 정치, 국제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인간의 결정과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진정한 주인공은 에스더나 모르드개가 아니라, 이름은 감추어져 있으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인공처럼 보이는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실상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때로 연약하고, 세속적이며,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미숙함과 한계까지도 도구로 삼아 오히려 사울 시대에 미완으로 남았던(삼상 15장) 아말렉에 대한 심판과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인간의 순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에스더서의 메시지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 가정과 직장, 일상의 수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순간을 자주 마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한 결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까지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사용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고백이 새해의 길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줍니다. 올해도 에스더서처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사무국 **편집주간** 이성도 최선미 **취재팀** 김환 신미숙 이숙영 최희주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방배동 예배당을 거쳐 2002년 4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회복된 성도가 가정을 살린다/회복된 가정이 교회를 살린다/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는 목회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본문과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리는 힘과 평강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시 29:1~11)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시편 29편은 독특하게도 어떤 간구 없이, 오직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고백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은 시간적으로는 과거·현재·미래를, 공간적으로는 하늘에서 땅까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두고 노래합니다.

하늘에 드러난 절대적 주권

1절과 2절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인은 먼저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신들의 아들들', 곧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 천사들을 뜻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드려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높으시고, 그분의 왕적 통치는 하늘과 땅을 모두 아우르는 절대적인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는 "영광을 돌리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야하브'는 '돌리다'가 아니라 '드리다,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되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표현 역시 문자적인 '옷을 입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시인은 하늘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로 나타나는 땅의 통치

시인의 시선은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시편 기자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호와의 소리"라는 반복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물, 산, 광야—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중 첫째는 '혼돈의 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3~4절). 고대인들은 바다를 가장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공간, 즉 창조의 질서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혼돈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우렛소리가 울린다고 선포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질서도 없는 그 적막의 공간에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안에 여전히 혼돈의 바다 같은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우렛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 심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으로 임하시고 그곳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시인은 둘째로 '높은 산', 곧 인간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높은 산이었던 레바논과 헐몬산은 견고함과 웅장함의 상징이었고,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소리가 그 백향목을 꺾으신다"고 말합니다.

> "하늘의 영광 속에서 통치하시되,
> 혼돈의 물과 견고한 산과
> 광야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 그분의 주권은 과거부터 영원까지
> 흔들림이 없습니다.
>
> 우리의 부족함과
>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기에,
> 그분의 사랑과 통치에 의지할 때
> 참된 평강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무이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마치 송아지가 뛰듯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이 가장 견고하다고 여기는 곳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영역—자녀, 명예, 재물, 건강 같은 '삶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무리 높아도 그 위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날 때 비로소 삶이 견고히 세워집니다.

시인은 셋째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증언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공간과 시간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신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꽃,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조차 하나님의 소리가 그 방향을 가르시고, 그 현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일—잠깐 스친 대화,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감정의 흔들림—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빈 들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광야를 흔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넘기고 싶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통치하십니다.

9절에서 시인은 이를 더 구체화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원문: 새끼를 낳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광야의 사슴 한 마리가 새끼를 낳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셔서 숲을 입히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시어 광야를 황량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자연의 변화가 곧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의 표적입니다.

결국 시인은 광야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기에, 실패처럼 느껴지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곳도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려야 할 고백은 하나입니다. "영광이라."

'영광(카베드)'이란, 무게감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무겁게 자리 잡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텅 빈듯한 시간,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통치, 힘과 평강의 복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땅 위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인류가 가장 큰 위기를 겪던 노아의 홍수 때조차 하나님은 왕좌에 앉아 통치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통치자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신다"(11절). 하늘과 바다, 산과 광야,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하나님의 광대한 통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이유가 바로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통치 아래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맺음말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시편 29편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통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과 함께,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힘 있게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왕이십니다!"

열린,빛으로의초대 후기

"그래서 궁금해졌어"

박찬미 청년부
3ichard@naver.com

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온,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속이 깊고 조용하지만 제 에너지를 잘 받아주며, 함께 있으면 늘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서로 각자의 삶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해가 없을 만큼 저에게는 오래된 '베스트 프렌드'이자 햇살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험악해지고, 교회와 교회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저는 이 친구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늘 조심스럽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제 곁에 이런 소중한 사람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전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마음 한편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졌지만, 친구가 좋아할 만한 소재를 통해 조금이라도 주님의 영향력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독교 서적을 선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별다른 기대 없이 지내던 중, 얼마 전 친구에게서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는 뜻밖의 연락이 왔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책 사진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곧장 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었습니다. 이 책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참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담아낸 이야기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면서도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기에 친구에게 잘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는 곧바로 '천로역정'을 읽기 시작했고, 몇 주 뒤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태신자 초청잔치인 '열린, 빛으로의 초대'에서 '천로역정' 뮤지컬을 공연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침, '불타는 금요일'이었음에도 그날 일정이 비어 있던 친구를 조심스럽게 초대하게 되었고,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가는 길부터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의 맛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분주했고, 친구를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준 후에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왜 나는 이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저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서 왜 그렇게 움츠러들었는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시며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들을 통해 저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계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친구에게 왜 성경을 읽고 싶어졌는지 물었을 때, 친구는 "찬미랑 오랫동안 지내면서 느꼈는데, 너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시간을 이겨내더라. 그리고 생각해 보니 너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이더라. 그래서 궁금해졌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작아지는 저이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며 저를 사용하셔서 친구에게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당장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열린, 빛으로의 초대'가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교리반 후기

모래 위의 신앙을 넘어, 반석 위에 서는 기쁨

유리빛나 장년7교구
ribitna@naver.com

'모태'신앙이었지만, '못해'신앙인으로 살았고,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복주의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삶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쉽게 위축되었고, 세상의 논리와 제 안의 의심이 충돌할 때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더 이상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는 '알고 믿는' 신앙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뼈대를 튼튼히 세우고 싶다는 갈망이 저를 이번 교리반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10주간의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리반 수강을 마무리하며, 제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된 세 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면의 갈등과 영적 투쟁이 곧 생명의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마음이 늘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면의 모순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제 연약한 모습을 보며 괴롭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 "진정한 중생의 증거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순수한 열정과 치열한 내적 투쟁이 있는가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롬 7:24)라고 탄식했듯, 갈등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죄성과 싸우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등 자체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넘어짐에 좌절하여 주저앉아있기보다, 이 영적 투쟁과 갈등을 성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믿고 경험해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배를 '보는' 관객에 가까웠습니다. 순서에 따라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론 강의를 통해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 성도가 주고받는 '인격적인 대화'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찬송과 신앙고백, 봉헌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반응하는 생생한 '쌍방향의 대화'가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요 4:23)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그동안 습관처럼 드렸던 예배에 대한 마음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능동적으로 대화하며 전심으로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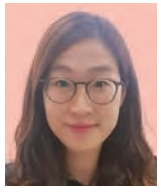
셋째, 종말은 두려움이 아닌 '완전한 회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의를 통해 종말은 모든 것의 파멸이 아니라 '완성'이며, 죄로 인해 왜곡되었던 창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교리반을 마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의 신앙 여정은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배움을 제 평생의 신앙 여정에 나침반 삼아, 앞으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2026년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앎이 삶으로 스며드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리를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약속의 말씀들이 제 삶의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견인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에 접붙여져 자라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귀한 진리의 체계를 세워주신 원종천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과 진리의 근원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춘기자녀어머니세미나 후기

사춘기 자녀 양육, 낮아짐에서 길을 찾다



김혜진 장년2교구
hyejin0309@careyou.org

저는 세 남매의 엄마입니다. 사춘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2 딸, 이제 막 그 터널 입구에 서 있는 초6 아들, 그리고 사춘기 언니와 오빠를 흥미롭게 관찰하는 초3 막내딸까지.

철없던 시절, 결혼만 하면 현숙한 아내와 훌륭한 엄마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무너지기 일쑤였고, 사랑 없고 연약한 저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세 명의 자녀를 보내주셨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열린 '사춘기 자녀 어머니 세미나'는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엄마들에게 단비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두 번의 강의, 그리고 나눔과 교제로 이어진 이 시간은 사춘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모인 엄마들의 눈물과 웃음, 깊은 공감과 깨달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낮아짐에서 일어남으로: 죄인 되어 주는 부모〉였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에게 '지시자'였습니다. 그런데 죄인 되어 주는 부모라니, 처음엔 그 의미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통해 깨달은 '죄인 되어 주는 부모'의 세 가지 원칙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첫째 원칙은 자녀 곁에 존재하는 사람, 바로 '살아있는 엄마'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저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엄마이기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더 애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이들 곁에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원칙은 엄마도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용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사과하는 엄마였습니다. 부끄럽지만 매번 같은 지점에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화를 내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사과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부모인 것 같습니다.

셋째는 부모인 내가 기꺼이 더 부족해질 때, 자녀는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한다는 역설적인 원칙입니다. 죄인 되어 주는 부모의 참된 표본은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끊임없이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고 권위를 내세웠던 교만한 저의 모습들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는 〈사춘기 자녀와 마음 나누기〉였습니다. 이 시간은 자녀들에게 상처받았던 말과 행동의 그 이면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거친 말투와 짜증을 '무시'라고 오해하지만, 실은 '에너지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힌 모습을 '게으름'이라 여겼지만,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분리되고자 함은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성장 과정'이며,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것 역시 '반항'이 아닌 '독립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춘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때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녀의 행동을 '태도'가 아닌 '필요'로 해석해 줄 때, 닫혔던 소통의 문이 열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 아이를 분주하게 등교시키면서 자녀들의 투정과 짜증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으며 '엄마는 역시 동네북이구나...' 하다가도, 학교와 세상에서 생활하며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크고 작은 일에 좌절하며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엄마에게는 좀 편하게 눈치 안 보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 곁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업'이 아니라,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심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엄마로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약개관학교 후기

지성의 갈증을 적시는 하나님의 역사

김영준 청년부
rladudwns_@naver.com

지난여름, 군 복무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온 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참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저의 보직이었던 취사병의 특성상 주일에 예배드리기 어려웠고, 군부대의 설교는 매우 짧고 간략하였기 때문에 누군가 제게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지성적 메마름에 많이 고파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혼의 메마른 갈증 속에 타오를 때 구약개관학교의 교육 신청 공고가 올라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10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39권의 모든 구약성경에 대한 개론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크게 모세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지혜서, 예언서 등의 개론을 들으며 기록된 성경의 문학적 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은 역사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구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역사서를 설명하면서 '신학적 역사관'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선택하고 강조하고 해석한다'는 의미이기에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강의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답이 주어질 때도 있었지만 사건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열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강의를 통해서는 석의(釋義)를 통해 주어지는 질문에 의문을 품고 스스로 교재와 성경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예화와 일상 속 경험을 성경 본문으로부터 도출되는 교리와 연결하여 실제적인 삶 속에 말씀이 녹아들게 하였고, 이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주어졌던 상황이 오래전 동떨어진 역사적 결과가 아니라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통감하게 하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예화의 내용이 깊고 다양해서 내용의 흐름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이 또한 더욱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듣기 전에 저는 성경을 1회독, 2회독, 3회독.... 해가면서 성경 전체의 구원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전에 설교를 통해 들었던 특정 본문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구약의 많은 본문을 시대적·문화적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 없이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읽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고,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저의 부족한 배경 지식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어렵게 다가왔던 구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읽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재로 사용된 책들을 통해 각 성경의 개론과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성경의 기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광채이며, 지혜롭고 경건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더욱 분명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통해 오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복이라 믿습니다.

3개월 동안의 강의를 통해 갈한 영혼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 유선명 교수님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조일권 목사님, 그리고 늘 따뜻한 마중과 달콤한 간식으로 함께 해 주신 허신구 집사님 부부께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 장년		▶▶ 청년
심효근(90)	이명훈(83)	이성주(01)
박가영(93)	양대규(74)	이연주(98)
김삼열(94)	김윤성(89)	권세일(01)
유하은(93)	박주희(90)	이예빈(99)
이희운(51)	윤향섭(44)	정근혁(97)
최원현(81)	김양자(41)	권가현(95)
이정연(85)		장선영(98)
		강예찬(01)

등불학교 후기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어린이

김온유(소년부 6학년)

난 이번 28기 등불학교에 참여해 보았다. 이것을 시작한 계기는 단지 부모님의 권유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등불학교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다. 이번 28기 등불학교의 주제는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어린이'였다. 이번 등불학교의 주제는 다른 주제들과 사뭇 남다른 것 같았다.

이번 등불학교는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물론 이번 암송이 생각보다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었던 것 같다.

그중에서도 잠언 26장 4~5절(새한글성경)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는 그를 본떠 미련하게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는 그를 본떠 미련하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생각이 들었다. 그럼 대답하라는 거야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의문을 들게 하였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었다.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대답하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언제는 말하지 않을 때가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것과 언제는 말할 때가 지혜롭다는 것이다. 가끔은 침묵이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말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등불학교에서 좋았던 점은 바로 활동들이 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인상 깊었다. 재미있게 설교해 주시고 영상도 재미있었다. 하지만 이번 등불학교 과제가 참신했다. 예를 들어 5주 차 '공동체의 기둥: 정의와 긍휼' 부분에서 만들었던 초가집으로 부모님과 사진 찍기 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번 등불학교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번 등불학교에서도 알게 된 것이 많았던 것 같다. 이렇듯이 이번 등불학교는 지혜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주예진(초등부 4학년)

저는 등불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잘 믿고 싶어서 신청하였습니다. 하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이번 등불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등불학교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늘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의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더 잘 믿어 지혜의 뿌리를 내려 제 마음에 심고 싶습니다.

말로 인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을 잘 생각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지혜로울 때도 있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항상 기도하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의 열매는 온전한 인격의 사람인데 우리의 인격은 섬김으로 완성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영아부에서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이 기쁘게 예배드리게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의 길과 파멸의 길을 잘 분별해서 매일매일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싶습니다.

영아부예배 후기

아이를 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문신애 장년6교구
jumpsa325@naver.com

열린교회에 와서 아이가 돌이 지난 즈음, 영아부 예배에 보내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모와 분리되어 드리는 예배라는 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않는 시기였기에, 한 시간 반가량의 예배 시간 동안 엄마 없이 불안해하지는 않을지, 많이 울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여의 적응 기간에 아이는 입구에서 들어가기 싫다며 떼를 쓰기도 했고, 안으로 들어가서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하면서 아이도 점차 편안함을 느꼈는지, 어느새 영아부 예배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현관에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 주시며 미소로 맞아 주시는 전도사님과, 늘 아이를 안아 주시고 기도로 섬겨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말을 시작한 이후에는 영아부 예배가 좋았는지 "엄마! 교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온유, 교회 좋아?" 하고 물으면, 아직 말이 서툰 아이가 "응, 좋아"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영아부 예배를 보내면서 아이에게 온 가장 큰 변화는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의 최애 찬양은 '하나님 저 왔어요!'인데, 처음에 이 찬양을 교회에서 배워 와 흥얼거리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나중에는 혼자 따라 부르며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기대하는 아이의 마음이 제게도 전해져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는 찬양-기도-말씀의 예배 순서를 기억하고 집에서 혼자 놀이처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녹화된 영아부 예배 영상을 틀어 달라고 해서 하루 종일 찬양을 따라 부르며 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 시기에 좋아하는 동요들도 많은데, 동요보다 찬양을 먼저 배우고 "엄마, 찬양 틀어 줘"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3월 학기 초, 교회학교에서 진행했던 '신발장 기도'를 영아부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현관문 앞에 기도문을 붙여 놓고 나갈 때마다 기도했는데, 말도 서툰 아이가 신발장 앞에서 두 눈을 꼭 감고 "아멘" 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기특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었는지, 26개월이 된 지금은 밖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엄마, 왜 기도 안 해?"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에 가끔 뜨끔하기도 하지만, 덕분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 이 또한 참 감사합니다.

아이가 영아부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저도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기에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영적으로 많이 갈급한 상태였는데, 아이와 따로 예배드리고 나서부터는 예배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과 저만의 시간이 되어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 하루 종일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고민도 많아지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하는 의심과 걱정이 참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일예배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영아부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는 언제였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예뻐 보이는데, 엄마인 저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작년 가을말씀사경회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서 교회가 교회 됨을 잃어가고 우리 또한 예배의 예배 됨을 많이 잃어간다는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고 정성스러운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아부라는 아이의 생애 첫 예배의 시작을 통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영적인 양식을 채워 가며 세상을 올바르게 이기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주요사역

4일(주일) 대표기도자 교육/청년부 새내기 성년식/
제직 명단 공고
5일(월) 해외신학교 입학식
5일(월)-17일(토) 해외신학교 집중 수업
6일(화) 교직원가족 시무예배
8일(수) 해외신학교 졸업식
10일(토) 중직자 기도회
11일(주일) 각 전도회 정기 모임
12일(월)-19일(월) 사경회를 위한 특별새벽기도
13일(화)-16일(금) 사경회 홍보전도
16일(금) 사경회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
20일(화)-22일(목) 새해말씀사경회/
교회학교 새해말씀사경회
25일(주일) 성찬식
30일(금)-31일(토) 청년부 리더수련회

핫에이지세미나 후기

B와 D 사이에서, 주님께 드리는 나의 선택들

이희경 장년2교구
r3p@naver.com

"여보, 오늘 정말 좋은 강의를 듣고 왔어. 6시간 동안 들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줄게. 중년 이후의 삶은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보다도 훨씬 길기 때문에, 세상에 섬김받기만 하거나 나만을 위한 소비 생활에 머물지 말고, '나이 든 보통 사람', '선배 시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대. 이제까지의 태도에서 벗어나 새 마음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야 한대." "그걸 이제 알았어? 누가 몰라서 안 해? 그걸 들어야 알아?" 아윽… 확 올라오는 화를 겨우 누르고 말을 이어갔다.

"두 번째 시간은 성인 자녀와 대화하는 법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의견 차이가 날 때 화내거나 당황하지 말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하고 '조금만 더 얘기해줄래?'라고 말하라는 거였어." "그런데 당신은 어제 왜 그랬는데? 애한테 엄청 화내더구먼." 부글부글… 이 남자가 내 인생 최고의 동지이자 최대의 적수라는 사실을 또 까먹고 있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응대해? 자기 편이 좋은 거 듣고 신나서 얘기하는데 굳이 깎아내리고 무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고! 앞으로 당신이랑 안 놀아. 뒷방 늙은이 돼서 혼자 살아봐!" 그렇게 투닥거리며 끝났지만, 언제나 그렇듯 남편의 말은 결국 생각하게 만든다. 왜 알면서도 못 살까?

나는 전쟁의 상처 속에서 배 굶지 않는 삶이 최우선이었던 부모님 세대의 가르침, 그리고 공부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경제성장기 세대의 신념 속에서, 자녀 교육비에 대부분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MZ세대의 이기적인 반응을 마주하면서 약간의 문화충격을 받았고, 급기야 AI라는 인공지능의 완벽함 앞에서 인간이 무능해질 것 같은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살아가는 50대 한국 여자다.

그리고 상상도 못 할 새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해주는 얘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시절 얘기만 하는 구닥다리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좀 더 얘기해 줄래?" 하며 먼저 듣고, 듣고, 듣고, 듣고 나서 변하지 않는 진리에 가까운 조언을 해주는 태도는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역시 자식을 위한 일은… 그나마 실천하기가 조금은 더 쉽다.)

그럼, 중년 이후의 베푸는 삶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군가의 유익을 돕고, 그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일은 비단 중년의 과제만은 아니다. 그런데 중년이라는 시기는 다른 때보다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막상 그런 선택을 기꺼이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왜 그럴까?

내 경우를 보면 이렇다. 20대에는 세상 속에서 방황했고, 30대에는 마침내 선택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 40대에는 애들에게 집중하다가, 50대가 되니 자녀는 성인이 되어 손이 덜 가지만 부모님들이 아프기 시작한다. 나 역시 여기저기 쏠쏠히 아파 온다. 아이들에게 가던 경제적 쏠림이 부모님과 병원비로 갈라진다. 거기서 보상심리가 생긴다. 나도 좀 내가 번 것으로 놀고먹고 쉬고 싶다.

배운 대로의 선택을 하기가 좀 억울하다. 내가 좀 덜 놀았나? 짬짬이 놀았으나,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해줬던 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쭉 놀고 싶은 것만은 아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은 시간이 남는 게 어색하고 간간이 손이 가지만, 자녀가 명절에만 찾아오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처지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나는 내가 결국 잘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분께서 계획해 놓으신 곳에 나를 두실 것이고, 나는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사랑하며 살 것이다.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성경은 그 말씀을 그대로 유지했고, 진실하며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업다운은 있겠지만 끝은 분명하다. 결과를 알고 보는 축구 경기다. 잘 모르겠는 그 AI의 세상이 와도 그럴 것이다.

다행히 이렇게 '나'에 대해 안정적으로 결론 난 것이 나의 50대인데, 그 이후의 나는 무엇을 하며 살까? 결과를 모르며 두려워하며 시간과 감정과 돈을 잘못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며, 그런 삶을 보여주며 그렇게 살게 하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 전도, 구제, 교제, 선행 등 여러 행동을 선택해야겠지.

중년 이후의 삶 특강 교수님이 인생은 B(탄생)로 시작해 D(죽음)로 끝나며 그사이에 여러 C(선택)를 하며 살아간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주님께 반납함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으나, 다만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주님의 사랑에 겨워 다시 그분의 손에 돌려드리는 것이 나라는 무의미한 존재를 보시고, 들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나의 최소의 보답이다. (그게 자기죽음일 수도 있겠다.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지, 사실 실천할 때마다 죽을 만큼 힘들긴 하다.)

무엇을 '해야 한다'보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머리로는 아는데도 나는 선뜻 시원하게 베풀며 멋있게 살 자신은 없다. 아직은 좀만 더 놀고 싶고, 날 위해 쓰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면서 보이는 게 있다면, 들리는 게 있다면, 켕기는 게 있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애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중년 이전의 삶과 달리, 생각과 마음이 여유 있어져서 이 세상에서의 100년이란 시간 중 남은 50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더 곱씹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덤덤히 해야 할 것 같다. 날 위해서 건강하게 살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도우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그분 앞에서 할 말들은 좀 챙겨서 가야겠다. 불성실한 나의 유일한 루틴인 아침 기도 때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게 하시고, 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하나님!"

그래도 남편은 좀 얄밉다. 내가 머리 싸매고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본인은 쉬운 결론을 짓고 또 바르고 착하게 살 것이다. 중년 이후의 삶을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 나가야 하나… 하지만 기막힌 향을 풍기며 쓱 앞에 내려놓는 오징어볶음이 너무 맛있어, 말 없는 화해를 하며, 남편의 아픈 잇몸이 마음에 걸려 약을 검색해 사주며,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를 중년 이후의 삶을 감사함으로 사이좋게 동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나저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확실하듯, 나같은 고집쟁이 성품은 들어야지 고쳐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주제의 듣기를 통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교회와 가정사역부에 감사드린다.

새공과소개/<회복-내가 너를 고쳐 주리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새해 첫 공과는 2024년 여름수련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실패와 상처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만날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경 속 미스바의 회복 운동과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의 눈물의 사경회,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귀, 마음을 돌이켜 통곡하는 회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회복의 세 과정을 제시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비로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은 예수의 향기를 기억하며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금 삶의 터전이 무너져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내가 너를 고쳐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인생의 폐허 위에 다시 감사의 노래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목양사역위원회)

추천도서

마음 다해 주일예배

폴 트립 지음 / 두란노

지난 수십 년간 낙심의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수많은 영혼을 빛 되신 예수께로 인도한 탁월한 목회 상담가 폴 트립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 건망증, 기억 상실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의 지표가 되는 복음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으로서의 주일예배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하루치 분량은 '복음의 핵심을 담은 묵상 글', '성경 말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질문', '소모임에서 나누면 좋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주일을 앞두고 주중의 분주한 마음을 가다듬도록 도와준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주일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새로이 타오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타성에 젖은 주일예배 시간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구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요, 찬송이 되기를! (출판사 서평 중)

믿음일기

사탕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황영우 장년2교구
emv65@naver.com

저는 1965년, 오지에 가까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불교와 무속을 믿으셨고, 아버지는 도교의 한 갈래인 옥황상제를 따르셨습니다. 마을 전체가 유교와 토속신앙이 깊이 자리한 곳이었고, 110가구 중 교회를 다니는 집은 단 한 가정뿐이었으며 그마저도 핍박을 견디지 못해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시집오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셨지만, 시댁 분위기와 마을의 시선 때문에 신앙을 이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교회는 그저 크리스마스에 사탕을 주던 곳으로만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대구로 올라가며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에 친구를 따라 작은 개척 교회를 찾았던 것이 제 신앙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 성격이 밝아질 것이라는 친구의 말이 이유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신앙에서 멀어졌지만, 입대를 앞두고 고향에 내려가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섬기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당시 시골 교회의 전도사님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군 영장이 나왔을 때 허리 문제로 인해 긴 복무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제 군 생활은 물론, 지금까지의 삶 전체를 붙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입대 후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중 간염으로 야전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 두려움 없이 치료받고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찬송을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자대로 복귀한 후에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침번을 서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큰 영적 스승이었던 전도사님의 별세 소식은 큰 슬픔이었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그분의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1989년 제대 후 한동안 신앙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진로 문제로 고민하던 중 S사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순번으로 면접을 보던 날 다시 여호수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면접을 보았고, 기적처럼 합격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대형 교회에 출석하며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두 자녀를 허락받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시골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먼저 교회를 다시 다니시기 시작하셨고, 유교 사상이 강하던 아버지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며 집안의 제사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결혼 후 군포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순간부터 신앙보다 체육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고,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찾고자 하던 때에 열린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8년 5월, 처음 열린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설교는 위로가 아닌 깊은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이 제 영혼을 강하게 흔들었고, 즉시 등록하여 지금까지 열린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열린교회 등록 이후 저는 성경 교육의 전 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하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적극적으로 채워갔습니다. 성장반, 섬김반, 목양반을 비롯해 신약·구약개관학교, 교리반, 새생명전도학교까지 쉼 없이 배우는 시간을 보내며 진리를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이 한층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구원의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고, 배운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법도 익혀 갔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반복되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감동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말씀 앞에서 제 내면 깊은 죄성을 마주하게 되었고, 진심 어린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조금씩 새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움과 은혜가 쌓이면서 신앙은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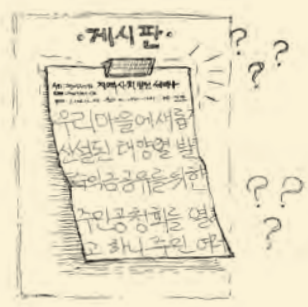
2025년 10월, 저는 36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있고, 기도해 주는 가족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어진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전도서 1:9).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곰곰이 생각

진짜로 질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질서를 아는 사람은
포스터의 제목보다 본문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면
그 우선순위를 뒤집지 않습니다.

질서를 사랑하는 사람은
휘어진 나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벗어난 흐름에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상인지 알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나요?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양>을 읽고.

한 컷 말씀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92편 12~13절

하나님은 삶의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 길에, 당신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2026

새해말씀사경회

온라인 방송
열린교회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2)

일시 1월 20일(화)~2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열린교회 본관 예배실

강사 김성진 담임목사

교회학교 새해말씀사경회

유아부~소년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

사랑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장소
각 부서실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진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융회 이동훈 박희준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효 김남근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한 김하림 이규희 최영광 조일권 오세광 김민성 정호석 최은광
협동목사 정창욱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 찬 이순이
교육전도사 최현성 박주광 원준식 곽승훈 권세원 이해선 한하영

파송선교사

A국: 1 units / **B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직장인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교회학교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1층 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4)
외국인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교육관 5층 외국인실)
백향목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테마학교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